

마나스의 후예?: 키르기스 민족정체성 형성의 특징*

강 봉 구**

1. 서론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5국 가운데 인구나 영토의 넓이로 보아 작은 국가에 속한다. 영토는 한반도보다 조금 작으며 인구는 5백만을 상회하는 수준이다.¹⁾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31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래,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형성 및 국가건설의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련의 붕괴가 아니었다면 독립국가로 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나라였다. 소비에트 시기 이전까지 키르기스사회는 민족 공동체보다는 씨족을 중심으로 영위되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독립은 하였으나, 키르기스 종족을 주류로 하여 민족국가를 이루기 위한 민족적 자각(national awareness)'도 사회통합을 위한 주민들의 정치적 의지도 찾기 어려웠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신생 독립국가들이 유사한 문제에 부딪혔지만,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였다. 명칭민족(titular nation)'인 키르기스인의 비율이 전체 주민수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소련 말기인 1989년 기준 52.4%)에 불과하였으며,²⁾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에너지자원이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7-362-B00013).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1) 영토는 198,500 평방km이며, 인구는 5,356,869명(2008년 7월 추정치)이다. CIA. 2008. *The World Factbook: Kyrgyzstan*.

2) 소련 말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명칭민족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키르기스스탄 52.4%, 카자흐스탄 39.7%, 우즈베키스탄 71.4%, 투르크메니스탄 72.0%, 타지키스탄 62.3% 등으로 예외적인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4개 국가들은 모두 과반수를 넘었으며, 그들 중 키르기스스탄의 명칭민족 비율이 가장 낮았다. Graham Smith

나 광물자원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 유목을 주산업으로 하는 작은 산악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독립을 통해 획득할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었다. 과거처럼 소연방 중앙으로부터 재정 보조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받는 것이 독립보다 국가경제를 더 용이하게 운영하는 방법이였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키르기스스탄을 “아무도 원치 않았던 독립국가(the independent state that no one seemed to have wanted)”로³⁾ 표현하기도 하였다.

독립 키르기스스탄이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부족 외에 키르기스인들이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부재하거나 약하다는 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건설 과정은 민족형성 과정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키르기스 민족의 형성이란 부재하거나 약한 민족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고양하는 과제에 다름 아니다. 억압당했다고 느끼거나 부재하던 민족 정체성을 발견·발명하여 이를 국가체제의 정통성과 국가·사회적 통합의 토대로 삼고, 이 국가적·민족적 과제를 수행한 업적을 바탕으로 통치 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⁴⁾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 역시 오랫동안 종교,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면서 종족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기보다는 상호 수용하면서 살아 온 중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진행되어 왔지만, 지리와 주산업의 특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명칭민족'인 키르기스인의 상대적 비

(1996), 501, Table 2 Nationality composition of the union republics/ post-soviet states, 1959-1989.

3) Lowe(2003), 106.

4) 정체성 정치'는 특정 사회집단 성원들이 공유한 부정의(不正義)의 경험에 기초한 광범위한 정치활동 및 이론화를 의미한다. 실용적 선언이나 당활동, 정체성 정치의 형성은 주변화된 특정 유권자층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체성 정치는 자신의 집단에 대해 과거 억압자들이 내린 나쁜 평가를 교정, 재기술 혹은 변형하기 위하여 기존 억압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기 집단의 열등성에 대해 지배문화가 단정한 부정적인 기술을 거부하고, 흔히 의식의 고양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Identity Polit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Nov. 2, 2007), <http://plato.stanford.edu/entries/identity-politics/> (검색일: 2009.01.18). 그러므로 정체성 정치는 억압받았다고 느끼는 집단들이 갖는 다양한 공유된 정체성' — 인종, 종족, 언어, 종교, 계급제도, 성(性) 등 — 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중이 적어 종족적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는 점, 강력한 씨족·부족 연계망의 온존 등으로 인해 개별적 특성도 현시하고 있다.

이 글은 키르기스스탄의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 및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민족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키르기스 종족의 기원 및 국가성의 역사, 민족 정체성의 원류이자 상징으로서 마나스 서사시(Manas epic), 키르기스스탄의 언어 정체성 및 종교 정체성 등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2. 민족 정체성을 보는 시각 및 용어

이 글에서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는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s)과 접근방법을 견지한다.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특정 지역 혹은 개별 국가들의 정체성을 문화적·종교적 유사성과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하나의 고정된 불변의 실재로서 인식하였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 본질주의적·원초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적 입장은 실재론자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주체의 정체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구성주의는 주체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는 외부적으로 혹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 변화한다고 본다. 정체성 형성이란 개별 주체들의 지속적인 자기 규정(self-definition)의 과정인 동시에 타자 규정(definition of the Other)의 과정⁵⁾이며, 이해관계는 정체성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연결되어 있다.⁶⁾

그리고 주체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구성물들 역시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들간의 간주관적 소통행위를 통해 변화되고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파악한다. 주체의 정체성이 항상 변화와 재구성의 과정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특정 주체의 정체성이 다양하고 분열적이며 중첩적이고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5) Suny(1999-2000), 147.

6) 위의 책, 139.

일례로 구성주의적 시각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다룰 때, 그것을 고정 불변의 어떤 실재라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이해한다. 외부적으로는 타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간, 내부적으로는 개별 민족·국가들간, 국가 내부 주체들간의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민족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그 한 부분인 사회적·문화적 구성물들 역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면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재론적 입장, 본질주의적·원초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란, 한 개체를 공간과 시간의 변화 및 구성 요소의 변화를 포함하여 외적 형태의 변화 속에서도 동일한 존재로 유지시키는 고정 불변의 어떤 것에 대한 탐구⁷⁾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개별적·집단적으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 속에 배태되어 있으며, 개인들과 집단들이 자신의 존재, 자아, 역할 등에 대해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속에 함축되어 있다 (..) 정체성이란 실제적인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특정 경제, 정치 및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의식 혹은 집단의식의 잠정적인 안정화로, 끊임없이 변전하는 세계속에서 어떤 — 종결이 없는 — 견고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으로 간주된다.⁸⁾

실재론적 입장은 정체성에 대해 주민들이 공유하는 동질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고유성을 상정한다면,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그 고유성이 가정하는 명백하고 바람직한 일체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잠정적인 안정성의 원천을 창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되거나 상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룰 국가정체성의 핵심 구성부분으로서 민족정체성⁹⁾이란 것도 고래로부터 형성되어 온 자연스런 것이거나 몰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 사회운동가, 지식인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혼용되고 주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족이라는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 (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¹⁰⁾와의 동일시를 가시적이고 감지할 수 있

7) 양승태(2006), 71.

8) Suny(1999/2000), 144.

9) 근대 국가체제가 대부분 민족국가(nation-state)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정체성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일국의 국가정체성은 민족, 언어, 종교, 관습, 의례, 이념 등 역사적으로 고유한 전통과 문화 요소들에 국가 체제와 제도를 더하여 구성되기 때문이다.

는 정서적·지적 헌신의 원천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정체성이란 특정 민족이 고유하게 공유·담지하고 있는 불변의 속성이 아니라, 개인적·집단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변환되고 재구성되는 정치적 정체성의 특별한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국가정체성, 그리고 대부분의 근대 민족국가의 경우 국가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민족정체성은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종속변수이며, 인과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 사용된 '종족', '민족'의 어법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종족 정체성은 종족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이를 통해 현재의 종족 공동체(ethnic community 혹은 ethnies)'를 정당화하고 긍정하려는 혈연적·인종적인 의미와 원주민 문화에 대한 강조를 내포하고 있다. 종족 공동체는 '고유한 집단 명칭, 공동조상의 신화, 역사적 기억의 공유, 한 가지 이상의 면에서 타자들과 구분되는 공통 문화 요소들, 특별히 본토(homeland)'라고 간주할 수 있는 공간적 귀속성, 주민의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연대감"¹⁰⁾ 등을 주된 속성으로 갖고 있다. 다음으로, 종족 정체성과 비교할 때, 민족 정체성'은 정치공동체의 존재 혹은 특정 민족의 자기실현 도구로서 주권을 가진 국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민족 정체성'은,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치공동체는 명확한 사회적 공간, 상당히 잘 구획되고 경계지워진 영토가 존재한다는 것, 공동체의 성원들은 그 공간 및 영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거기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¹²⁾

3. 키르기스 종족의 기원 및 국가성의 역사

키르기스라는 명칭은¹³⁾ 기원전 201년에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키르

10) "그러면, 인류학적 정신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민족의 정의를 제안한다: 그것은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이다 — 그리고 본래부터 제한되고 주권적인 것으로 상상되었다." Anderson(1991), 5-6.

11) Smith(1991), 21.

12) 위의 책, 9.

기스인은 고유문자를 갖기 못하여 자신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다. 그 결과 키르기스인의 종족적 기원과 발전, 국가성의 연원에 대해 여러 논쟁적인 학설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절에는 당시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입장과 해석이 공식적인 소비에트 학설로서 통용되었으며, 독립 후 역사연구는 민족·국가 형성의 과제를 마주하여 민족의 유구한 뿌리와 영광스러운 역사적 위업을 강조하는 정체성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비에트 시기 및 독립 후 키르기스 종족과 국가성 발전 과정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인간 거주 역사를 30만 년 전 석기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청동기 시대에 오늘날 비쉬켵(Bishkek) 인근의 정주민들은 농경을 하고, 가축을 방목하고 도자기와 철기물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약 B. C. 1000년부터 A. D. 100년까지의 철기 시대에 사키(Saki)와 우순(Usun) 부족들이 키르기스 북부 하천의 계곡들에 거주하였다고 한다.¹⁴⁾

일련의 고고학적·인류학적 성과물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명칭 민족'의 종족적 기원을 해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키르기스인에 대해 문서로 기록한 최초의 언급은 고대 중국의 연감에서 발견된다. 키르기스 역사는 주로 중국어, 아랍어, 이란어, 그리스어, 터어키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정작 19세기 말까지 키르기스인 역사가가가 키르기스민족에 대해 쓴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양학자 바톨드(W. W. Barthold)는 1927년 유럽인들 가운데 최초로 키르기스 역사를 개관한 바 있다.¹⁵⁾

소련시대에 들어서 역사학자들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에 관해 집단 저작들을 포함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대의 키르기스 역사 연구는 공산주의 교조적 이데올로기의 침투 및 역사 해석의 지나친 정치화 등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기서는 역사 기술 과정에서 이념이나 정치로부터 좀

13) 키르기스'란 말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40개 지파들'을 의미한다.

14) Harmon (2005), 33.

15) Barthold (1963).

더 상대적인 자유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 탈소 시대의 입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키르기스인들의 종족적 발전에 대한 현대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주로 구학과(the old school)'를 대변하는 저자들은, 러시아혁명이 있었던 1917년 이전 키르기스인들은 정착민들의 봉건적 친족 구조를 고려할 때 민족(nation; нация)'이 아니라 민족 이전 단계(sub-nationality; народность)'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새로운 역사적 입장은 нация, народность 등 인위적인 용어 구분을 거부한다. 이들은 키르기스인은 고대로부터 역사적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고 이해한다. 고대에 키르기스라는 명칭은 아시아 내륙 지역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기원전 201년에 처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¹⁶⁾

중국어로 된 고대 문헌은 키르기스인들의 조상들이 약 4천 년 전부터 오늘날의 키르기스가 아니라 몽골의 북서쪽에 살았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들은 아마도 중국 정착민들을 괴롭혔던 변방 침략자들 중의 한 무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8세기경에는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오늘날 몽고의 북부이며 키르기스스탄의 동북부)의 거주민들을 키르기스인이라고 지칭하였다고 한다. 10-16세기에 이들 중의 일부가 몽골족 등 강력한 세력들에 밀려서 남쪽으로 이주하였다고 보는 것이다.¹⁷⁾

키르기스인에 대한 소비에트 역사학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은 오늘날 키르기스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라는 것이었다.¹⁸⁾ 이 입장은 키르기스인들이 그 곳으로 이주한 어떤 다른 역사적 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다. 즉, 키르기스인들과 그 조상들은 고대로부터 이 나라에서 살아 왔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역사학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은 예니세이로부터 이주해 왔던 것은 키르기스인들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종족적 명칭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시각을 약간 변용한 소비에트 역사학자들은 현대 키르기스인들은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의 후손이 아니라 알타이산맥 키르기스인들의 후손이라고 간주한다. 알타이산맥 키르기스인들은 15세기와 16세기 초에 천산산맥으로 이주해 와서 키르기스 sub-nationality(народность)를 형성하였다는 설명이다. 이 역사

16) Tyntchtykbek Tchoreov (2002), 355.

17) Harmon (2005), 37.

18) Плоский (1984. ред.), 50.

학자들은 알타이와 예니세이 지역들이 중앙아시아 및 내륙아시아의 북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역사적 광역 속에 위치하고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오늘날의 키르기스 민족이 알타이 키르기스(Altai Kyrgyz)' 종족 집단들의 이주로부터 기원하였다는 그들의 믿음은 소련 역사학계의 낡은 도식의 잔재처럼 보인다.¹⁹⁾

이와는 달리 키르기스 중세 역사를 다룬 탈소 시대의 모든 출판물들은 키르기스사에서 예니세이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예니세이 이주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견해는, 키르기스인들은 고대 이래 시베리아 남부의 예니세이 지역과 접경 지역들에 살아왔으며, 남시베리아와 서몽골은 고대로부터 키르기스인들의 본토라는 것이다. 둘째 견해는 독립 후 키르기스 역사가들에게 널리 수용되는 것인데, 대흉노(the great Hsiung-nu)' 제국 시기에 살았던 고대 키르기스인들이 동천산 산맥 지역에 정착하였다고 본다. 이들은 동쪽으로부터는 유연(柔然 혹은 연연, Juan-juan), 서쪽으로부터는 헤프탈라이트(Hephthalites)의 압력을 받아 이 지역에서 5세기에 예니세이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의 역사는 키르기스민족의 역동적 이주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남시베리아의 광역 내에서 이동해 왔던 연속적인 이주사의 일부일 뿐인 것이다.²⁰⁾

이 두 번째 입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키르기스인들의 이주와 재이주의 시기를 규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는다. 이에 대해 카라예브(O. Karaev), 쿠디아코프(Yu. S. Khudiakov), 타발디예프(K. Sh. Tabaldiev) 등 역사가들은 예니세이로부터 천산으로 키르기스인들의 재이주는 9-13세기 사이에 한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이 해석은 키르기스스탄의 중등용 새 역사교과서에 수록되었다.²¹⁾

이처럼 키르기스의 종족적 기원 문제는 중앙아시아 종족 역사 중 가장 논쟁적인 것 중의 하나인바, 정확하게 고증이 어려운 조건에서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역시 근거는 제시되지 않지만, 한 투르크 부족이 10세기 경에 남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연안에서 천산산맥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들이 키르기스인일 수 있다고 유추하기도 한다. 다만, 오늘날 키르기스인들

19) Tchoreov (2002), 356.

20) 위의 책, 355-56.

21) 위의 책, 356.

은 동투르크인(Eastern Turks)'과 몽골족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²²⁾

키르기스 국가 형성에 대한 소비에트 역사학계의 통설은 레닌주의의 민족 정책 덕분에 키르기스의 국가성이 민족 자치의 형태로 수립되었다고 본다. 이 해석은 역사상 소련 시기에 키르기스에서 형성된 공산 정권보다 앞섰던 키르기스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에트 시기의 민족 자치 원칙 아래서 키르기스 국가성은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나갔다.

- ① 카라-키르기스 자치주(the Kara-Kyrgyz Autonomous Oblast): 1924년 10월 14일
- ② 키르기스 자치주(the Kyrgyz Autonomous Oblast): 1925년 5월 25일
- ③ 키르기스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yrgyz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1926년 2월 1일
- ④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yrgyz Soviet Socialist Republic): 1936년 12월 5일

소연방의 해체 시기이던 1991년 8월 31일 키르기스스탄은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4개월 후 소련의 공식적 붕괴 이후 명실 공히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 국가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독립 이후 소련 이전의 키르기스 국가성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몇 연구들에 따르면, 키르기스 고대 국가의 뿌리는 흉노(Hsiung-nu)'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키르기스 국가는 동천산 산맥에 위치하였으며, 이 지역은 보로-호로(Boro-Khoro) 산맥'의 북부와 드조소틴-엘리순(Dzosotyn-Elissun) 사막'의 서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 견해를 보완하는 또 다른 견해는 흉노 제국을 투르크계 주민들의 공동된 국가적 기원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주로 투르크계 역사학자들의 생각이다. 키르기스인들은 6세기에 예니세이 계곡에서 자신들의 국가인 키르기스 카가나트(Qaghanat)를 복원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오르혼(Orkhon)' 투르크계 주민들이 세운 이웃 국가들에게 종속하였다. 840년에 키르기스 주민들은 오르혼의 위구르 카가나트를 멸망시키고 내륙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다. 당시 키르기스 국가 영토는 남시베리아, 알타이, 몽골 및 동투르크스탄을 포함하였다.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엽까지 키르기스

22) Lowe(2003), 107.

인들이 이루었던 강성한 국가를 러시아 사학자 바르톨드는 키르기스대제국 (the Kyrgyz's Great Empire)'이라고 불렀다.²³⁾

10세기의 4반세기 말경에 키르기스 유목 제국은 몇 개로 분열되었다. 키르기스 왕자(bek: prince)들이 지배하는 작은 국가들이 남시베리아와 몽골 북서부에 병존하고 있었는데, 1206년 징기스칸이 이들을 동 지역의 지배자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키르기스 카가나트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는 이념적·정치적 이유 때문에 공식적인 소비에트 학술 출판물들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키르기스 중세사를 다룬 거의 모든 저서나 논문들은 이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 연장선상에서 전통적인 소비에트 역사학계는 18세기 초엽에서 1876년까지 지속된 코칸드 칸국(the Kokand Khanate)'의 역사를 1762-1831년 기간에 키르기스 땅을 정복한 외국의 역사로 간주하였다. 이와는 달리, 코칸드 칸국의 역사를 키르기스인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몰도카시모프(K. Moldokasymov)와 케넨사리에프(T. Kenensariyev)와 같은 역사가들은 코칸드 칸국을 하나의 다종족 국가로 인식한다. 즉, 코칸드 칸국은 페르가나 키르기스인들을 포함하여 페르가나 계곡의 주민들 모두를 위한 공동의 국가였다는 해석이다.²⁴⁾

이처럼 10세기 전반에 키르기스 유목제국이 분열한 이후로는 키르기스인들이 어느 정도 지속된 국가성을 유지한 적은 없었다. 씨족·부족이 경제사회적 활동의 장이자 정치적 충성의 단위로 기능하였으며, 이 단위는 민족 의식에 기반한 정치체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비에트 시기인 1936년 12월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오늘날의 영토에서 최초로 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민족국가'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소련의 해체(1991년 12월)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건설을 시작하고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민족 정체성의 원류: 마나스 서사시'

상술한 바처럼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된 과거 역사의 해석과 재해석 역시 크게 보아 독립 후 키르기스스탄의 국가·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23) Tchoreev (2002), 357.

24) 위의 책, 358-59.

과 정책의 큰 틀 속에 있거나 적어도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른 탈소비에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 역시 새로운 국가기념일(일례로, 독립기념일은 8월 31일) 제정,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의식의 거행, 기념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례 시행, 산맥과 거리 등 고유지명의 개칭²⁵ 등을 통해 키르기스인들의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 통합과 민족적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체성의 정치²⁶에 국가 문화 자산과 대중들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국가정책적 노력은 과거를 재발견하려는 국가 기호학(state semiotics)²⁶의 일종이거나 키르기스 민족국가의 발명(the invention of nation-state)²⁷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과거 민족국가를 이루었던 정치적 전통이나 강력한 종교 정체성이 없는 조건에서 키르기스 민족 정체성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을 제시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설화에 등장하는 영웅을 공식적인 국가상징으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키르기스인들이 숭배하는 전설적인 전사이자 영웅인 마나스(Manas) 이야기이다. 뒷발로 곧추 선 말위에 늠름한 기상으로 앉아 있는 마나스의 모습은 수도 비쉬켈의 중앙광장에서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전역에서 동상이나 그림의 형태로 가장 흔히 마주치며, 또 오래 기억되는 민족 혹은 국가 이미지이다.

키르기스인들은 마나스 서사시²⁸를 가장 소중한 민족적 문화유산으로 간주한다.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와 함께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구전 서사시로 평가되는 마나스 이야기는 약 5백만 행에 달하는 장대한 분량인데, 그 길이는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와 얼리어드를 합한 것의 약 20배에 해당한다. 서사시의 내용들은 키르기스인들이 서사시에서 묘사된 전투들을 치루면서 오늘날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해 온 대략 9세기경부터 12세기 사이에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⁸

25) Korth(2005), 120-21.

26) Lowe(2003), 114-17; Smith, Law, Wilson, Bohr and Allworth(1998), 144-47.

27) Roy(2000), 161-65.

28) 마나스 서사시²⁸는 15세기경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1885년이 되어서야 기록 문학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서사시의 여러 부분들을 포함하는 65개 이상의 문서 버전들이 존재한다. 마나스서사시 기념식이 열린 1995년에 메이(Walter May)가 오로즈바코프(Sagimbai Orozbekov)판을 영어로 완역하였으며, 2004년에 두 권으로 재

약관의 나이 12세에 자신의 민족을 외적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겠다고 서약한 뒤, 힘, 용기, 대담함으로 키르기스인들을 규합하여 외적들을 쳐부순 영웅의 이야기에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끊임없이 전투를 치루면서 자유를 얻고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키르기스인들의 유목사가 펼쳐진다. 마나스치(Manaschi: 마나스 전문 음송가)²⁹⁾가 등장인물처럼 몸짓을 하면서³⁰⁾ 가락을 붙여 음송하는 마나스 서사시의 한 구절을 들으면서 키르기스인들은 옛 선조들의 무용담과 자유정신을 고감한다. 마나스 이야기는 고산 지대의 고원과 계곡을 따라 방목하던 유목민들의 후예인 키르기스인들이 민족의 지난했던 과거사에 대해 쉽게 공명하고, 깊게 각인된 씨족과 부족의 범주를 넘어 한 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키르기스 정부는 마나스 서사시를 민족적 정체성과 일체감 고양의 토대로 삼기 위해 1995년 마나스 서사시 1천 주년 경축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 상징적인 기념식은 1940년대에 베른슈탐(Bernshtam)과 몇몇 지식인들이 제안한 것인데,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야 현실화된 것이다. 그리고 1천 주년을 기념하여 마나스 오르도 단지(the Manas Ordo complex)³¹⁾와 박물관을 준공하였다.

독립 키르기스스탄의 첫 대통령이었던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마나스를 키르기스인의 이상형으로, 마나스 서사시를 일종의 국가이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는 1995년의 마나스 서사시 기념식 관련 지도자 모임에서 아카예프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사람들은 마나스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난다. 대통령 자신이 마나스 서사를 바탕으로 직

발간하였다. 텍사스공과대학에 소장된 투르크 구비문학 아카이브에는 서사시 전문 번역이 제공된다. *Manas, Vol.I-Vol.IV.*, Archive of Turkish Oral Narrative, Uysal-Walker, Texas Tech University. <http://aton.ttu.edu/turkishlist.asp> (검색일: 2009.01.08). 그리고 실크로드재단의 웹사이트에 마나스 서사시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해제가 첨부되어 있으며, 서사시의 몇몇 극적인 부분들이 번역되어 있다. <http://www.silkroadfoundation.org/folklore/manas/manasintro.html>; <http://www.silk-road.com/folklore/manas/manasintro.html> (검색일: 2009.01.08).

29) 마나스치는 기억의 문화'로서 구전되어 왔던 원래 서사의 시행과 토막 이야기, 인물들을 독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위대한 마나스치들은 비범한 창작자로서 존경받는다. Stephen Kinzer(2000), 1.

30) *The Kyrgyz Epic Manas*. Selections translated, introduced and annotated by Elmira Kocumkulizi, p.8. <http://www.silk-road.com/folklore/manas/manasintro.html> (검색일: 2009.01.08).

접 창안한 원칙들은, 민족적 단합, 관대하며 관용적인 휴머니즘, 민족들간의 우의와 협력, 자연과의 조화, 애국심, 근면과 교육, 키르기스 국가체제의 강화와 방어 등 일곱 가지이다. 키르기스 지도부는 7가지 원칙으로 요약된 마나스 정신을 독립국가의 시민으로 거듭난 키르기스인들의 정신적인 교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이념적 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쉬시의 머림학교(Meerim School)'처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수재들을 위한 몇몇 학교에서는 마나스의 전설을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을 정도이다.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키르기스인들에게 마나스 이야기는 단순히 서사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성경과도 같다고 하였다. 민족에게 닥친 난관을 극복한 조상들의 이야기가 독립 후 체제전환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키르기스인들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고무하는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의지력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통치 엘리트는 마나스 서사시를 일종의 키르기스판 '국난극복기'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상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정리하면, 마나스 서사시 기념식을 비롯한 마나스 이상화 정책은 고대 키르기스 영웅의 행적을 기림으로써 키르기스인으로서의 민족적 일체감과 자부심을 드높이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를 통해 신생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이 과제에 헌신하는 현 정권과 정치 엘리트의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2000년에는 페르가나 계곡의 고도 오쉬(Osh)시 탄생 3천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의 명령, 오쉬시의 3천주년 기념식 조직에 관하여”는 1996년 3월 25일 발표되었다. 오쉬시의 정도(定都) 시기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기 때문에 3천년이란 이 도시의 나이는 사실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오쉬시 3천 주년 기념식 또한 고도(古都)의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키르기스 민족의 유구한 뿌리와 문명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였다. 이 역시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양양하는 국가와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두 가지 국가적 경축 행사는 1995년과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정체성 정치는 역사의 재발견 및 재해석뿐만 아니라 국가 이념 및 체도의 수립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키르기스인들의 민족적 일체성과 단합을 고양하여

31) Kinzer(2000), 1-3.

국가정체성을 명백히 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헌법 전문에 뚜렷이 부각된다. 헌법제정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는 전문에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명칭 민족'의 정치적 주도성과 고유 민족 문화의 보호와 진흥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헌법 전문 역시 키르기스인들의 민족적 부흥을 제 1의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소수민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언급함으로써, 국가건설과 주권확립에 내재하는 근본 정신을 짐작할 수 있다. 보편적 인권의 존중을 언급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이 민족국가 이념(the idea of a national state)'에 토대를 둔 나라이며, 이에 충실할 것을 천명한다. 민족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은 1993년의 헌법에서 여태까지의 국명이었던 키르기스스탄공화국(the Republic of Kyrgyzstan)'을 키르기스공화국(the Kyrgyz Republic)'으로 개칭한 데서 그 정점에 달했다. 전자보다 후자의 국명에서 키르기스스탄 국가의 종족적 성격이 훨씬 강하게 묻어나기 때문이다.³²⁾

5. 키르기스스탄의 언어 · 종교 정체성

5.1. 언어 정체성

국가 ·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가장 명시적이며 핵심적인 구성 요인이 언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종족 혹은 민족이 고래로부터 사용해 온 언어는 자신들을 타인들과 구분하는 가장 명료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개인이 특정 종족 혹은 민족의 성원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들 중의 하나가 된다.

종족-언어 정체성(ethnolinguistic identity) 이론은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 범주로 집단화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과정에서 언어가 보통 종족적 구분의 한 표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사회화와 언어획득은 함께 일어나며 상호구성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개인들이 하나의 특정 집단에 속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이 상징과 의미의 동일한 체계를 공유하고 우리 의식

³²⁾ Smith, et. al.(1998), 147-148.

(us-feeling)'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종족정체성 및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는, 자신을 특정 집단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 집단의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³³⁾

상기한 맥락에서 소련 해체 후 독립한 신생국들이 국가 및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원하는 정체성의 정치'에서 언어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련 시기 키르기스어에 대한 소비에트 학계의 공식 입장 및 소비에트 당국의 언어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독립 이후 키르기스 언어정체성 형성 문제를 다룰 것이다.

소련 시기 키르기스에 대한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소비에트 역사편찬의 기본 입장은 키르기스인들은 소비에트 이전 시기에 그들 자신의 집필 문화 및 집필 문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세 및 소련 이전의 키르기스 민족과 관련된 문자가 새겨진 기념비들은 한마디로 조사·연구의 대상이 되질 못했다. 집필 유물들로는 8-12세기의 예니세이 키르기스의 집필 유산들, 9세기 중반의 몽골 북부 키르기스 영주의 수지인-다반(Sujiin-Davan) 비문' 등이 대표적이다. 10세기 경 아랍의 지리학자인 둘라프(Abu Dulaf)는 키르기스인들이 자신의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9-10세기에 키르기스 영주들은 불교 경전을 필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하였다.³⁴⁾

이런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면, 소비에트 이전 키르기스인들의 문자 생활에 대한 소비에트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키르기스 지역에서 이슬람은 카라하니드조의 칙령에 따라 960년 이후에 국교가 되었으며, 키르기스인들은 약 10세기부터 아랍문자를 사용하였으며, 1928년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인들은 아직까지도 아랍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키르기스인들은 소비에트 초기인 1928년에 라틴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었다가,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한 스탈린 정권이 소련에 거주하는 모든 투르크 민족들은 키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1940년부터 키릴문자를 쓰게 되었다. 소위 사회주의 문화혁명기였던 1920-30년대에 구 지식인들에 대한 박해와 함께 많은 과거 책들을 없애 버렸다.³⁵⁾

독립 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니야즈(Mulla Niyaz), 킬리치(Moldo Kylych),

33) Korth(2005), 27.

34) Tchoreev(2002), 365.

35) 위의 책, 365.

아라바예프(Eshenaly Arabaev), 몰도(Aldash Moldo) 등 소비에트 이전 시기 지식인들의 작품들이 출판되었다. 소비에트 이전 시기에 키르기스어로 출판된 책들이 한 두 종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 이후의 동 출판물들은 소비에트 이전 시기에도 키르기스 민족에게 집필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자료이다.³⁶⁾

소수 민족의 민족 문화와 고유 언어에 대해 이를 보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지원하는 것이 소비에트 당국의 공식 정책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러시아어의 광범위한 보급과 사용으로 인해 언어·사회 생활에서 개별 민족 언어보다 러시아어의 규정력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산업화와 개발, 소비에트 체제 및 문화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모스크바의 국가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다음으로 지방 공화국 엘리트의 소비에트 체제 적응 노력의 결과였다고 보아야 한다.

2차 대전 후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산업화를 위해 많은 러시아인들을 동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키르기스 엘리트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 기술·지식을 가진 러시아인들과의 소통 및 기술·지식의 전수를 위해 선진 사회의 언어로서 러시아어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동시에 소련의 공식언어인 러시아어의 습득은 소비에트 체제에 적응하고 통합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키르기스인들은 오랫동안 아랍문자를 쓰다가 라틴문자로(1928년), 또 다시 키릴문자로(1940년) 표기 수단을 짧은 시간에 두 차례나 바꾸게 되어 문서작성 및 기록으로서 너무나 취약했던 탓에 교육, 행정, 법률, 과학기술 등 핵심 영역들에서 자신의 언어 가치를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

민족어로서 키르기스어의 쇠락 현상은 러시아 민족주의의 고조나 주류 민족인 러시아민족으로의 동화를 의도한 정치적 요구보다는 광대한 영토와 다문화·다언어 사회에서 국가·사회의 통합을 위한 공식언어 제정의 요구, 다민족 사회에서 민족간 의사소통 언어의 필요성 등 언어의 도구적 기능을 강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독자적인 언어정책은 소련 말기로부터 시작된다. 독립 2년 전이며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였던 1989년, 키르기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yrgyz SSR)은 국어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안은

36) Tchoreev (2002), 366.

러시아어와 여타 언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법안의 8조는 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키르기스어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러시아인들은 이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키르기스 의회는 1989년 10월에 국가 행정 문서들을 1997년까지 키르기스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몇 년 동안 모든 공문서들을 러시아어에서 키르기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예산부족, 언어 전환의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언어 정책의 기본 원칙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결과, 1998년에 채택된 키르기스스탄 헌법의 제5조 규정을 통해 키르기스어에 유일한 국어 위상(sole state language status)을 부여하는 언어정책을 채택하였다.³⁷⁾ 러시아어를 비롯한 기타 소수 언어들을 등가로 처리해 버리고, 키르기스어를 국어로 인정하는 단일언어주의(monolingualism) 이념을 천명한 것이다.

키르기스 정부의 이러한 탈러시아 언어정책은 한편으로 키르기스 민족이 명칭민족이자 명실 공히 주류민족으로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종족국가 모델(an ethnic state model)³⁸⁾ 추구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배제하는 분리주의 언어정책을 통해 소련 시대의 주류 민족이었던 러시아민족과 러시아어에 대한 키르기스인들의 정서적 분출인 반발적 민족주의³⁹⁾에 부응하고 이를 신생국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용하고자 했던 정체성 정치⁴⁰⁾의 산물이었다.

<표 1> 키르기스스탄의 종족별 구성 비율(% , 1926-1999)

민족/년도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1996	1999
키르기스	66.8	51.7	40.5	42.6	47.9	52.4	60.3	64.9
러시아	11.7	20.8	30.2	29.2	25.9	21.5	15.7	12.5
우즈벡	10.6	10.4	10.6	11.4	12.1	12.9	14.2	13.8
우크라이나	6.4	9.4	6.6	4.1	3.1	2.5	1.6	1.0
독일	0.4	0.8	1.9	3.1	2.8	2.4	0.5	
타타르	0.5	1.4	2.7	2.0	2.0	1.6	1.2	
기타	3.6	5.5	7.5	7.6	6.2	6.7	6.5	

출처: Jacob M. Landau and Barbara Kellner-Heinkele(2001) *Politics of Language*

37) Korth(2005), 117.

38) 위의 책, 120.

in the Ex-Soviet Muslim Stat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26. 그리고 CIA, *The World Factbook: Kyrgyzstan 2008*을 결합하여 작성.

<표 2>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의 언어 구사 비율(1989년)

민족(전체인구 대비 비율)	러시아어 구사 인구 비율	키르기스어 구사 인구 비율
키르기스(52%)	37%	-
러시아(22%)	-	12%
우즈벡(13%)	39%	4%
우크라이나(3%)	94%	2%
독일인(2%)	95%	0.3%

출처: Valery Tishkov(1997)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and after the Soviet Union: The Mind Aflame*, London: UNRISD/Sage Publications, p.90.

키르기스어만을 국어로 인정하는 단일언어주의는 소수 민족들이 처한 언어 환경과 언어 사용 권리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폐해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소연방을 구성했던 개별 민족 공화국들에서 독립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던 소련 말기에 키르기스스탄의 명칭민족인 키르기스인의 비중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52.4%)에 불과하였다.(<표 1> 참조) 약 절반에 불과한 키르기스인들조차도 도시 지역 거주민들 중의 일부 및 젊은이들은 키르기스어를 구사할 수 없었다. 나머지 소수 종족들 가운데 키르기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였다.(<표 2> 참조) 이런 상황에서 키르기스인과 타종족간, 그리고 키르기스인을 제외간 타종족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러시아어의 구사는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특히 북부 도시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던 러시아인들은 고조된 민족주의의 뜨거운 흐름 속에서 차별적 언어정책을 직면하게 되자 달라진 환경과 자신의 위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대부분 행정부서와 경제기관들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고 고학력이며 중앙아시아민족들보다 상대적 부유함을 누렸던 러시아인들은 변화된 자신의 처지와 새로운 국어 키르기스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전문·숙련 노동 인력이 다수였던 러시아인들은 대거 키르기스를 떠나 국외로 이주하였다. 소련말기인 1989년 키르기스스탄 전체 주민의 21.5%를 차지하던 러시아인들의 비율은 1996년 15.7%로 감소하였다.³⁹⁾ 러시아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키르기스인들의 높은 출산율을 감안하더라도 국외 이주로

인한 러시아인 주민수의 절대 감소를 짐작할 수 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처하여 악화되고 있는 산업 생산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전문가와 숙련 노동자를 증원해야할 마당에 러시아인들의 국외 이주는 경제 난국을 더욱 심화시켰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아카예프 대통령은 1994년 6월 대통령 명령(№120) 키르기스 공화국의 이민과정 규제 조치에 관하여(On Measures to Regulate Migrational Processes in the Kyrgyz Republic)를 통해 러시아어 사용 지역과 국가 경제의 중대한 부문들에 국한하여 러시아어를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로 인정하였다. 키르기스 정부가 비명칭민족 혹은 소수민족들이 소통어로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어의 지위를 격상한 정책은 탈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언어 정책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비키르기스인들의 국외이주를 유인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물론 국외이주의 원인은 언어적 불편함이나 이주국의 이민정책 변화 탓일 수도 있으며, 더 크게는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찾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복합적 원인들이 결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아카예프 정부는 언어정책을 수용적·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우리들의 공동의 집,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our common home)이라는 구호아래 다종족으로 구성된 공민국가(a multiethnic, civic state) 건설을 자신의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언어정책에서 동 비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아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어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1995년에 국민투표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어에 공식어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수정안을 수용하였다(1996년 12월). 그러나 의회가 헌법개정안을 부결함으로써 이 시도는 좌절되었다. 4년 후 의회는 동 안건을 재심하여 모든 공공생활에서 러시아어에 공식어의 지위를 부여하는 키르기스공화국의 공식어에 관하여(O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Kyrgyz Republic)란 법안을 가결하였다(2000년 5월 25일). 여기서 키르기스어의 지위인 국어(state language)와 러시아어의 지위인 공식어(official

30) 키르기스스탄의 독립을 전후로 하여 러시아인들은 대거 국외로 이주하였다. 1990년에 16,300명, 1991년에 17,400명, 1992년에 48,500명, 1993년에 50,900명, 1994년에 31,600명 등이다. Jacob M. Landau and Barbara Kellner-Heinkele(2001), 27.

40) Smith, et. al.(1998), 151.

language)'의 차이점은 다만 상징적인 차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⁴¹⁾

정리하자면, 키르기스 정부의 이러한 점진적인 언어정책 전환은 민족간 갈등 해소 및 전문인력 방출 저지라는 단기적 정책 목표 외에 다문화 언어정책을 통해 다민족 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제 정착과 경제성장을 위한 문화적·사회심리적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가진 것이다. 국가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종족국가모델(an ethnic state model)'을 추구함으로써 부수되는 문제점과 폐해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공민국가모델(a civic state model)'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종교 정체성

키르기스인들은 수니 4대 법학파들 중의 하나인 하나피 법학과(the Hanafi school of law)'에 속하는 수니 무슬림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동일한 무슬림이라도 지역적으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관행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원인으로 키르기스를 횡단하는 천산산맥이 남과 북을 가른다는 지리적 요인, 지역간의 종족적·문화적 차이 및 해당 지역에 뿌리 내린 이슬람 교단의 성격 등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하늘처럼 높다'는 뜻인 천산산맥(天山山脈, Celestial Mountain)의 5천 미터가 넘는 드높은 산군들이 국토를 갈라 남북의 자유로운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다. 9세기~12세기 사이에 남쪽에서부터 전파된 이슬람은 먼저 키르기스의 남부 지역에 뿌리를 내려 이미 16세기에 모스크와 마드라사(madrassah)가 생겨났다. 키르기스 무슬림들이 가장 신성한 성지로 여기고, 과거 소비에트 무슬림들은 제2의 메카(Mecca)로 부르기도 했던 유명한 순례지 슐레이만의 옥좌(玉座)(the Throne of Suleyman)'도 오쉬시 서쪽에 있다.⁴²⁾ 이와 비교하여 북부 키르기스스탄에는 이슬람이 상대적으로 늦게 전파되었으며, 더 유연하게 현지화되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자연의 힘에 의존하는 유목민의 관습상, 동물이나 자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원시종교 형태들이 키르기스인들의 신념체계 속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파된 이슬람은 전통적인 토테미즘,

41) Korth(2005), 119-20.

42) "Kyrgyz: Religion and Expressive Culture," <http://www.everyculture.com>(검색일: 2009.02.18).

애니미즘 및 무속신앙 등을 포괄하는 토착 신앙 및 관례들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뿌리내렸던 것이다. 19세기 말엽까지 대부분의 키르기스인들은 피상적으로나마 이슬람 의례를 준수하는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다.⁴³⁾

키르기스스탄의 소수 종족들의 분포를 보면, 인구의 21.5% (소련 말기인 1989년 기준)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은 주로 북부의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으며, 12.9% (1989년 기준)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들은 오쉬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다. 동일한 키르기스인 무슬림이라도 이러한 지역별·종족적 특성에 따라 신앙생활의 행태도 차이점이 있다. 키르기스 사람들은 대부분 이웃 민족들에 비하여 신앙생활에서 덜 교조적이며 유연하고 세속적인 토착 이슬람을 신봉하고 따른다. 특히 러시아인과 러시아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북부 무슬림들은 일상 이슬람 의례의 실천과 이슬람의 문화적 관행에 엄격하게 집착하지 않는 편이다. 이들의 종교적 의례에는 여전히 토테미즘과 무속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이에 비해 우즈베크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쉬와 잘랄아바드(Jalal-Abad) 등 남부 지역에서 이슬람은 일상생활에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정통 이슬람 의례의 준수에 더욱 충실하다.⁴⁴⁾ 특히 장례식처럼 전통 관습과 의례가 강하게 남아 있는 행사에서 토착화된 이슬람과 정통 이슬람의 행태는 명백히 구분되며, 때로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상기한 지역적·종족적 분포의 영향 외에 키르기스스탄의 남부에는 페르가나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와하비즘(Wahhabism)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부에서의 이슬람 실천 관행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이슬람 정체성 역시 씨족·부족을 매개로 발현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일상 이슬람 의례의 실천 역시 전통적인 부족 의례의 영향을 받고 그것과 융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⁴⁵⁾ 다음으로 이슬람 신앙생활은 씨족 내에서 씨족에 종속되는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마드라사에서 종교 교육을 받고 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무엇보다 먼저 특정 지방의 씨족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해당 공동체의 무슬림들로부터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

43) "Kyrgyzstan — Religion," <http://countriesstudies.us/kyrgyzstan/14.htm>(검색일: 2009.02.18).

44) Fletcher and Sergeyev(2002), 253-54.

45) "Kyrgyzstan — Religion."

을 수 있는 구조이다.⁴⁶⁾

주로 산악지대에서 유목에 종사하였던 키르기스인들은 씨족과 부족의 연고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자족하였다. 그러다 보니 키르기스인들은 고대로부터 씨족과 부족의 유대가 강하여 이에 대한 충성심이 일상생활을 거의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심지어 서로 다른 씨족에 속하는 키르기스인들 간의 차이점이 키르기스인과 러시아인과의 차이점보다 더 크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⁴⁷⁾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씨족과 부족의 유대가 약한 것은 아니나 다른 어느 곳보다도 키르기스스탄의 그것이 더 강하며, 소비에트 통치도 다른 공화국들과 비교하여 키르기스스탄에 덜 침투하거나 더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데 그쳤던 것이다.⁴⁸⁾ 소비에트 권력의 이념적·제도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는 살아남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씨족·부족 연계망은 지금도 남부와 북부 주민들을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슬람 역시 중앙아시아에 보편적인 수피즘의 특성을 갖고 있다. 수피즘은 토착 신앙의 의례들에 대해 관대하였기 때문에 토테미즘과 무속 등을 포함한 유목적 종교 관습을 가진 키르기스인들이 이를 수용하기가 쉬웠으며,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수피즘은 전통 이슬람과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의 전통과 관습, 특히 샤머니즘이 혼합된 형태이다.⁴⁹⁾ 성자숭배와 성묘방문은 전통 이슬람과 구분되는 수피즘의 관행인데, 여기에는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적인 습속에 내포된 조상 숭배와 기복(祈福)적 샤머니즘의 요소가 뚜렷이 드러난다.⁵⁰⁾

수피교단(the Sufi order of Islam)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활동적인 무슬림 집단들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을 키르기스스탄에 전파하고 뿌리내린 네 개의 수피 형제단(tariqas: brotherhoods)'은 부하라에서 연원한 가장 대중적이며 강력한 형제단 '낙시반디아(the Naqshbandiya)', 고대로부터 있었던 형제단

46) Kathleen Collins (2003), 181.

47) Lowe(2003), 125.

48) Fletcher and Sergeyev (2002), 253.

49) 수피즘은 투르크족이 이슬람을 수용하여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뿌리내렸다. 수피 운동가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전통 이슬람과는 달리 생활 속의 이슬람을 실천하는데 힘썼다고 한다. 최한우 (2000), 176-77.

50) 우덕찬(2001), 181.

인 카디리야(the Qadiriya)', 남카자흐스탄에 유래된 형제단인 야사위야(the Yasawiya)' 및 호레즘 형제단인 쿠브라위야(the Kubrawiya)' 등이다. 또 키르기스스탄에는 야사위야'에서 분기한 두 개의 토착 교단이 있다. 하나는 19세기 말에 형성된 라치 교단(the Order of Lachi)'이다. 라치 교단은 구 교단들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의 박해를 받았다. 라치교단은 소비에트 체제에도 반대하여 1950년대까지 박해를 피해 지하에 잠적해 있었으며, 오늘날 오쉬 지역에는 모두 라치 교단 형제들만이 사는 몇몇 마을이 있다. 다른 토착 수피교단은 헤어리이산(the Order of the Hairy Ishans)'이다. 헤어리이산 교단은 1920년대에 형성되어 소비에트 체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역시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후자는 다른 수피교단들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예배 참여를 허용한다. 미세한 차이를 무시하면, 수피교단의 열성신도들은 종교적 견해에서 좀 더 극단적이고, 비무슬림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통 무슬림들과 차이가 있다. 소비에트 시기에 수피즘 의례는 박해를 피해 음송 예배 대신에 묵언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오늘날 키르기스 무슬림들은 표준적인 이슬람 성직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피 교단들 역시 종교 지도자인 무르쉬드(murshid)'의 지도를 따라, 출생, 할례, 혼인, 장례 등 중대사를 기념하여 이슬람 의식과 관례를 실천한다.⁵¹⁾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상 이슬람의 관행과 실천은 지역별, 종족별, 정착 교단의 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전통 이슬람이 토착화, 일상화 및 세속화된 형태인 수피즘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씨족·부족 단위와 그 연계망의 틀 속에서 이슬람의 의식과 관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무슬림이라는 인식이 키르기스스탄의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념적 접착제 구실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독립초기에는 보수주의 세력이 이슬람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헌법은 키르기스스탄이 그 국정 운영에 어떤 종교적 요소의 개입도 인정하지 않는 세속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키르기스 지식인들이 고대 유목민들의 세계관인 텡기르칠릭(Tengirchilik)'을 부흥하려고 하는 시도 역시 정체성의 정치'에서 전체 이슬람의 역할과 비중을 약화하는 사례이다. 키르기스인들은 전통적인 유목생활에서 유래한 관습과 믿음들이 외래 종교인 원리주의 이슬람의 의례 및 관념과

51) "Kyrgyz: Religion and Expressive Culture."

충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투르크인들이 공유하는 토착 종교의 믿음과 의례들을 모두 체계화하여 키르기스 민족 고유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텐기르칠릭'은 하늘' 혹은 하느님'을 의미하는 투르크 고어인 탕그리(Tangri)'에서 나온 말이다. 옹호자들은 텐기르칠릭이 이슬람이나 기독교같은 세계 종교보다도 삶과 세계에 대해 더 정교한 견해를 가진 고대 세계관이라고 주장한다.⁵²⁾

정리하면, 상술한 키르기스 이슬람의 특성들로 인해 독립 후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종교의 정치적 동원 역할은 거의 없었으며, 키르기스인들의 무슬림이라는 동일한 종교적 정체성 역시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에서 이념적 결속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키르기스 무슬림들이 타종교에 대해 비배타적이며 세속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이 추구해 온 '공민국가적'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쪽이라고 하겠다. 전 아카예프 정부가 이슬람이나 다른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마나스 서사시를 키르기스인들에게 민족 정체성의 구심점을 제공할 국가이념의 토대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결론

독립 후 키르기스 정부는 다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뒤늦은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키르기스 유목 제국' 이후 한 번도 민족 단위의 국가체제를 이루지 못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키르기스 정부는 민족 정체성의 재발견 혹은 발명을 위해 집단 기억과 역사의 재구성 등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의 정치'에 의존하였다. 주권 국가가 된지 약 2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키르기스인들의 민족적 자각과 민족 의식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고양되었다. 자국의 국어인 키르기스어에 대한 애착심과 마나스 서사시'에 대한 자부심은 공유된 민족 정체성의 명시적 징표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정체성 형성 과정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요인들로부터 기인한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동성이 그 특징인 유목민이었

52) Kuchumkulova(2007).

던 키르기스인들의 종족적 원류가 역사적으로 매우 불분명하며, 고대 이래로 국가체제가 이어져 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할 정서적·이념적 기초인 민족적 자각과 민족의식이 부족하였다. 독립 이후 아카예프 정권은 무시되거나 소외되어 왔던 민족의 뿌리와 전통 문화를 재발견하고 민족적 자부심의 양양을 통해 국가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적극적인 '정체성 정치'를 활용하였으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통치 엘리트가 목표로 한 '공민국가'의 건설과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키르기스인들의 민족의식은 취약한 데 비해, 씨족·부족 정체성은 강력하게 온존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키르기스인들의 자기 정체성 규정을 씨족·부족의 범주를 넘어 민족의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 키르기스인들의 자기 정체성 규정에서 씨족과의 동일시는 아주 강력해서 민족적 일체성과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 정치의 수행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독립 이후 첫 정권인 전 아카예프 정부의 개혁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망명하게 된 것도 많은 부분 씨족 중심 정치가 초래한 폐해의 결과이다. 수니 무슬림이라는 가장 보편적으로 공유한 종교 정체성도 씨족·부족 중심의 원형질을 침투하여 씨족 중심 정서를 민족 혹은 국민의 정서로 전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키르기스 정체성을 규명하고 함양한다는 것은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어의 국어 지정과 전통문화 진흥 정책, 마나스 서사시의 국가 상징화 등은 비키르기스 주민들을 소외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5%(1999년 인구센서스 기준) 정도가 타종족인 다민족 국가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사회 통합과 공화국으로서 국가체제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키르기스 주민들을 키르기스스탄인(Kyrgyzstani)'으로 동등하게 일체화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국가이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마나스 서사시'는 키르기스 종족의 영웅을 예찬하고 기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의 보편적 국가이념이 되기에는 원천적인 제약성이 있다.

키르기스인들은 다른 중앙아시아 토착 종족들과 함께 제정 말기인 1916년에 짜르의 학정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정도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하였다. 소련 시기에 들어서는 중앙아시아 근대화·산업화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도로, 통신 시설의 확립, 지역 특화 산업

시설 건설, 근대 교육제도의 확산, 의료 체계의 보급 등 여러 부문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키르기스인들은 그러한 근대화 작업이 주로 북부에 정착한 이주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주한 러시아인들이나 우크라이나인들에 비해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토착 지도자들 역시 중요한 결정은 모두 모스크바에 내려지고, 지역의 핵심 권력 부서 및 좋은 일자리들은 러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 즉 점점 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배제되고 있다는 소외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키르기스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1988년 키르기스 작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모스크바가 키르기스 전통적인 관습과 의례, 이슬람에 대하여 비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좌절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⁵³⁾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이 키르기스인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정체성 정치'의 틀 속에서, 포용적이기보다는 다분히 배제적인 성격을 가졌던 연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제한적인 공식언어로 인정한(1994년 6월)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키르기스스탄의 민족국가 형성은 종족국가모델'에 곧 모든 주민들이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향유하는 공민국가모델'을 가미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키르기스인이 중심이 되는 민족국가의 형성이 일정 정도의 과도기를 경과하여 국가성이 안정되었으므로, 키르기스인들뿐만 아니라 영토내의 모든 주민들이 키르기스스탄인'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도록 고무하는 통합적 이념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민족 사회의 사회통합에서 주류 민족의 배타적이며 배제적인 정체성 노출 경향은 도리어 사회통합의 장애가 된다. 키르기스스탄은 초기 국가건설 과정과 정체성 정치'에서 필요했던 — 억압받았으나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 우리는 키르기스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의 강조를 넘어, 모든 소수 종족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우리는 키르기스스탄인'이라는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키르기스 공화국(Kyrgyz Republic)'이 진정한 공화국이자 공민국가'가 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다.

53) Harmon(2005), 40-45.

참고문헌

- 양승태(2006)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체성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한국정치학 회보』 40:5(겨울).
- 우덕찬(2001)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6
- 최한우(2000)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현상과 과제」, 『중앙아시아연구』 5
- Плоский, В. М.(1984. ред.) *История Киргизской ССР: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ом.1. Фрунзе.
- Abazov, Rafis(2007) *Culture and Customs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London: Greenwood Press.
- Agadjanian, Alexander(2001) "Revising Pandora's Gift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Soviet Societal Fabric," *Europe-Asia Studies*, Vol.53, No. 3
- Anderson, John(1999) *Kyrgyzstan: Central Asia's Island of Democracy?* Amsterdam: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Barthold, W. W.(1963) *Киргизи: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Том.2. Москва: Сочинения.
- Britta, Korth(2005) *Language Attitude Towards Kyrgyz and Russia*,. Bern: Peter Lang.
- CIA(2008) *The World Factbook: Kyrgyzstan*.
- Collins, Kathleen(2003) "The Political Role of Clans in Central Asia," *Comparative Politics*, Vol.35, No. 2(January).
- Collins, Kathleen(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ca, Marat(2006) *The Tulip Revolution: Kyrgyzstan One Year After: March 15 2005-March 24, 2006*. Washington, DC: Jamestown Foundation.
- Everett-Heath, Tom. ed.(2003)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Routledge.
- Fletcher, Joseph F. and Boris Sergeyev(2002) "Islam and Intolerance in Central Asia: the Case of Kyrgyzstan." *Europe-Asia Studies*, Vol.54,

- No.2(March).
- Harmon, Daniel E. (2005) *Kyrgyzstan*, Philadelphia: Mason Crest.
- Khazanov, Anatoly M. (1995) *After the USSR. Ethnicity, Nationalism, and Politics in the CI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inzer, Stephen (2000) "A Legendary Hero Guides a Reborn Kyrgyzstan," *The New York Times* Jan. 2
- Körth, Britta (2005) *Language Attitudes towards Kyrgyz and Russian*, Bern: Peter Lang.
- Kuchumkulova, Elmira (2007) *Kyrgyz Nomadic Customs and the Impact of Re-Islamization after Independ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Landau, Jacob M. and Barbara Kellner-Heinkele (2001) *Politics of Language in the Ex-Soviet Muslim Stat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wrence, Krader (1997) *Peoples of Central Asia*, Surrey, England: Curzon Press.
- Lowe, Robert (2003) "Nation Building and Identity in the Kyrgyz Republic," Tom Everett-Heath, ed.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Routledge.
- Roy, Olivier (2000)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ahadeo, Jeff and Russell Zanca, eds. (2007) *Every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d Presen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mith, Graham, e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Post-Soviet State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Smith, Graham, Vivien Law, Andrew Wilson, Annette Bohr and Edward Allworth (1998) *Nation-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ny, Ronald Grigor (1999-2000)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3(Winter).
- Tchoroey, Tyntchtykbek (2002) "Historiography of Post-Soviet Kyrgyzstan,"

-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34, No.2 (May).
- Tishkov, Valery(1995) "Don't Kill Me, I'm a Kyrgyz!":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Violence in the Osh Ethnic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2, No.2(May).
- Tishkov, Valery(1997)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and after the Soviet Union: The Mind Aflame*, London: UNRISD/Sage Publications.
- <http://aton.ttu.edu/turkishlist.asp>(검색일: 2009.01.08).
- <http://www.silkroadfoundation.org/folklore/manas/manasintro.html>(검색일: 2009.01.08).
- <http://www.ukm.uio.no/utstillingen/kirgisistan/englishprint/print7.html>(검색일: 2009.01.08).
- "Kyrgyz: Religion and Expressive Culture." <http://www.everyculture.com>(검색일: 2009.02.18).
- "Kyrgyzstan — Religion." <http://countriesstudies.us/kyrgyzstan/14.htm>(검색일: 2009.02.18).
- "Identity Polit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Nov. 2, 2007). <http://plato.stanford.edu/entries/identity-politics/>(검색일: 2009.01.18).
- The Kyrgyz Epic Manas*. Selections translated, introduced and annotated by Elmira Kocumkulkizi. <http://www.silk-road.com/folklore/manas/manasintro.html>(검색일: 2009.01.08).

Abstract**Attributes of Kyrgyz National Identity Formation****Kang, Bong-Gu**

One of the most serious obstacles that independent Kyrgyzstan faced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was the absence of national identity that Kyrgyz people was able to share. Therefore the Kyrgyz nation building has been proceeded in a way which Kyrgyzstani leaders have invented or created a Kyrgyz national identity that they perceived had been suppressed or absent in the past, then have made it a basis of state legitimacy and national integration, and finally have strengthened their political legitimacy and power through this mechanism. It is a kind of 'identity politics' in Kyrgyz style. Kyrgyzstan, nowadays, is entering into a new stage, where she needs to formulate and develop a civic state identity, a common belief that 'we are Kyrgyzstani' shared by all Kyrgyzstani citizens. This new concept of State identity is moving beyond the past emphasis of a Kyrgyz national identity that 'we are Kyrgyz,' which was needed in the initial phase of Kyrgyz nation-state building.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9. 03. 15
논문심사일:	2009. 03. 20 ~ 2009. 04. 07
심사완료일:	2009. 04. 23